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대 회 사

부처님의 가피로 한·일 양국의 불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국 불교계의 우호적 관계와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참석하신 미야바야시 회장스님을 비롯한 일본불교 스님과 불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대회는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는 종교를 넘어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핵심적인 사상이고, 삶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대회가 양국의 불교 전통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불교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으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가 빈번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애써 일궈온 문명을 훼손하는 전쟁의 공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와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이 사회의 불안과 어둠을 양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극복하고 불제자로서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공동체의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손을 잡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구현하는 것은 양국의 불교계가 새로운 변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양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의 진실 앞에 당당하게 마주하고,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

불교는 차별과 오해를 걷어내고 모두가 진실하게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양국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승한 전통을 훌륭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양국의 쌓아온 전통불교문화의 상호 이해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양국 불교계의 깊은 관심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 사찰간 공동연구회 운영, 불교문화 역사 교육을 위한 교재 마련 등, 필요한 실천 방안을 한일·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준비해가야 할 것입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함께하고, 미래 세대의 바른 불교문화 교육으로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양국 불교계가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불교계는 최근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라는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인과 소통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회를 통해 부족하나마 한국의 불교문화를 일본에서 오신 귀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를 통해 하나되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한층 양국 불교계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해 주신 미야바야시 스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국이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성공적이고도 소중한 대회로 회향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 승